

#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급여 지원

### 올해 기준 4인 가구 월 286만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 전북자치도교육청, 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이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대비 평균 11.1% 인상된 금액으로 초·중학생 41만5,000원→46만1,000원, 중학생 58만9,000원→65만4,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72만7,000원이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 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e-

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 교과서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 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e-

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7일 전북대 학술문화관서

### 김누리 중앙대 교수 초청강연

오는 7일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2024 대전환, 대한민국의 도전 '교육개혁과 통일'을 중심으로 주제로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초청강연회가 열린다.

김누리 교수는 브레멘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로 현재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교수는 TVN '미래수업',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외 다수 방송출연과 전국 지자체, 교육단체 등 스타강사로 저서로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시피닉스' 외 다수를 집필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개혁과 지방분권 전북포럼(회장 주재민)에서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총학생회, 민주동맹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지역대학민주동맹협의회, 전북청년21, 전주발전협의회, 전주사이아스사랑모임, 전주시학교육운영위원장협의회, 봉우리에서 후원한다. /장은성 기자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청렴을 발판으로 도약하자”

### 서 교육감, 직원조회서 강조

“청렴을 발판으로 도약합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직원조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변화가 우리의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슴 뜨겁게 일하되, 청렴이 그 도약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일의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하면서 “업무의 과

정을 보다 면밀히 챙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뜨겁게 일할 때, 전북교육은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교육가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끼찾기상담센터

### 한국원예문화진흥원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끼찾기상담센터(센터장 고경자)는 4일 파바로소 회의실에서 한국원예문화진흥원(대표자 김진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전주기전대학 재학생의 진로·심리 지원에 대한 통합적 개입 및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사회공공체적 책임을 갖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주기전대학 끼찾기상담센터와 한국원예문화진흥원(주)은 전문가적인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전북테크노파크

### 폴리텍 전북캠퍼스 등과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달 29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재)전북테크노파크와 삼자간 공유·협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지역사회 신산업(이차전지) 분야 지역 정주형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교육, 교육·연구·시설 등 정보교류,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사업성과 창출 및 교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우병훈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북지역 이차전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공급하는 거점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과목 선택권 확대... 전북온라인학교 첫 수업

### 개별 교과서 개설 어려운 과목 중심 쌍방향 온라인 수업 제공

### 농어촌 소규모학교 과목 운영 지원·신산업 분야 과목 개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북온라인학교가 4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23년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1일자로 전북온라인학교를 개교했다.

전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원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특히 특정 교과 교원 미배치, 소인수 선택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경제, 정치와 법, 물리학 I, 중국어 I, 인공지능 기초 등 17개 과목 35개 강좌가 개설·운영되는 가운데, 마령고등학교 외 15개 학교 3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향후 개설 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더욱 다양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인 미디어실과 온·오프라인 강의실, 융합수업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호라존 스튜디오 등 원격수업 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5월 말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6월부터 최신 에듀테크 기반 원격수업 설비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온라인수업을 제공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91명 신규 채용

교육행정 35명 · 시설관리직 19명 · 운전직 16명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총 91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35명(일반 29명·장애 4명·저소득층 2명), 전산직 3명, 공업직(일반기계·일반전기) 7명, 식품위생직 3명, 시설직(일반토목·건축) 8명, 시설관리직 19명, 운전직 16명 등이다. 이 중 공업직(일반전기) 1명과 시설직(건축) 2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시험은 18세 이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으로 돼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전까지 전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법령·고시·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간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한편 제1회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5~19일까지 온라인교육원 채용(http://educruit.jbe.go.kr)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면접시험은 8월 9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선정

### 전북대, 최대 10년동안 102억 지원받아 인력 양성 나서 지식재산 교육 체계화 · 융합전공과 대학원 과정 신설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특허청과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과 지역주력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대는 사업 선정을 통해 5년 간 국고와 대응자금 등 4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0년간 약 102억을 지원받아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구축해 2년간 학내에 파견화 돼 있는 지식재산(IP) 교육을 공학, 법학, 경영,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체계화하는 등의 교육과 실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에 융합전공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공유대학에 교양교육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통해 IP출발, 보호, 권리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대학30 사업, LINC3.0사업단의 글로벌 PBL(Problem Based Learning)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송철규 단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RISE 체계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전북 주력산업인 바이오생명, AI/반도체, 에너지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서 “기업과 함께하는 강력한 IP기술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북대가 국내 최고수준의 IP기반 R&D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전북통일교육센터 지정기관 선정

### 2026년 2월까지 열린통일강좌 · 통일안보 체험 등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통일부 전북통일교육센터 지정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석대는 △정부 통일교육 방향 부합성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수행 역량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역량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2026년 2월까지 북한 인권과 북

한 실상 알리기를 비롯한 열린 통일강좌, 찾아가는 통일 순회강좌, 통일안보 체험학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전북지역의 통일교육을 책임지는 거점기관으로서 더 체계화되고 특색이 된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육주체 온라인 소통 공간 개통

###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함께학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주체 온라인 소통 공간인 '전북함께학교'를 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전북함께학교 누리집(http://jbe.go.kr/together)에 접속해 간단한 실험 인증 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함께학교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주체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현장 중심 소통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나포 십자 틀널에서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 군산부설초, 3·1절 기념 달리기 대회

###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서 출발 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여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나포 십자 틀널에서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학교 달리기부 학생들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발하는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한 후 달리기 5km 코스를 완주했다.

2023년에 조직된 군산부설초 달리기부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인 김신철 교장이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아침 운동 및 방학 캠프 등으로 꾸준히 실력을 키워왔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천바람 때문에 매우 추웠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비하면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5km 달리를 완주하는 것보다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끈기와 인내심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